

##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김봉환 김계현

한국기술교육대학 서울대 교육학과

진로상담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 미결정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은 이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선행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터하여 지금까지 진로 미결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정리하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 미결정의 개념을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의 개념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어서 진로 미결정의 측정과 관련하여 비교적 연구자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측정도구인 CDS, VDMD, MVS, OAQ, VDS, CDMSE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로 미결정과 중요하게 관련되는 변인들로서 능력, 불안, 흥미, 의사결정 양식 및 성격변인 등을 상정하고 이를 다룬 연구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진로 미결정의 차원과 유형을 다룬 연구들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한 후, 이어서 진로 미결정을 다루는 상담실제에 있어서의 개입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을 개관하였다.

최근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실제에 있어서 진로 미결정(career indecision)이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Slaney, 1988; Winer, 1992). 진로 미결정이라는 용어는 진로발달과 관련된 문제(problems), 특히 진로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를 언급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Fuqua, Blum, & Hartman, 1988; Osipow, Carney, & Barak, 1976). 이처럼 진로 미결정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진로

상담의 본질이라는 측면과 진로 미결정이라는 문제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래 진로상담이란 진로 미결정 학생들로 하여금 만족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 진로상담의 이같은 기능은 Phillips(1992)가 진로상담의 이상적인 모습을 '문제가 없는 선택(problem-free choosing)'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규정된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 미결정은 매우 광범위한 현상이다. 미국 대학생들의

## 진로 미결정의 개념

약 18%-50%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Gordon(1981)의 지적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상담소에 도움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진로결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일부 상담자들은 진로 미결정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을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또다른 상담자들은 이들을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 미결정이 진로상담 영역에서 차지하는 이같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에 관련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상담심리학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 분야 즉,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을 통해서 발전해 왔음에 비추어 볼 때(김계현, 1995), 진로상담은 심리상담에 비해서 이론과 실제의 발전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진로상담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본 논문은 그 일차적인 목적을 지금까지 수행된 진로 미결정에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보는 데 두었다. 아울러 이같은 논의에 기초해서 앞으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연구영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진로 미결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2)진로 미결정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3)진로 미결정과 중요하게 관련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4)진로 미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가? (5)진로 미결정자들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6)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진로 미결정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의 개념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진로 미결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 한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Wanberg & Muchinsky, 1992).

아마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이분법(dichotomies)을 구성하는 것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Kelly, 1955), 상담자들은 우선 진로에 관련된 내담자들을 결정한 사람들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진로를 결정했다 함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Williamson(1937)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여러가지 문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미결정한(undecided)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indecisive)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Hartman, Fuqua, & Hartman, 1983; Vondracek et al., 1990). 진로를 미결정한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발달 단계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큰 압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

직업의 세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결정의 과정을 연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미래의 진로에 관련된 결정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결정들에 대해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문제는 만성적인 미결정(chronic indecision)으로 불리어 왔다(Hartman, Fuqua, Hartman, 1983; Slaney, 1988). 이는 이미 오래 전에 Tyler(1961)가 진로에 국한된 미결정자들과 일반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미결정자들로 二分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일단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결정자와 미결정자를 구분하고, 미결정자는 다시 진로에 국한된 미결정자와 만성적인 미결정자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 개념은 그 차원과 유형이 다양하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 진로 미결정의 측정

진로 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집중적인 관심을 받거나 타당성을 검증받은 도구는 그리 많지가 않다.

진로 미결정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 도구는 Osipow 등(1980)에 의해서 개발된 Career Decision Scale(CDS)이다. CDS는 내담자와의 면접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 미결정에 대해서 16개의 서로 구별되는 선행요인들(distinct antecedents)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전체적인 미결정 점수를 산출할 뿐만 아니

라, 요인분석을 통해 미결정에 관한 네 가지의 원인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 네 가지란 (1) 구조와 확신의 부족(a lack of structure and confidence), (2) 접근-접근 갈등(approach-approach conflicts), (3) 선호하는 선택에 대한 지각된 외적 장애물(perceived external barriers to preferred choice), (4) 개인적 갈등(personal conflict) 등을 말한다. 이 도구를 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무런 타당도(validity)도 보고된 바 없지만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902 및 .819로 보고된 바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안정성은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CDS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토하기 위해서 Hartman과 Fuqua(1982)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사용한 결과, CDS가 단지 미결정에 대한 단일차원의 측정치(unidimensional measure)만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Rogers와 Westbrook(1983)은 다른 방법으로 본 척도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DS와 학생들의 SAT점수 간에 .06과 .07의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정신적인 능력(mental ability)과의 상관이 낮은 것은 이상적인 것이며 이같은 종류의 측정에 있어서 비교적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CDS의 여러 요인중 "진로결정에 관한 구조와 확신의 부족"은 특히 미래에 만성적인 진로 미결정자가 될 사람을 잘 예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artman, Fuqua, & Hartman, 1983; Hartman et al., 1985). 따라서 이들은 만성적인 미결정자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CDS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활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Holland와 Holland(1977)는 진로 미결정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이 만든 VDMD(Vocational Decision Making Difficulty Scale)는 연구의 대상으로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진로 미결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몇몇 변인들을 탐색하여 미결정을 설명하려는 데 과도하게 집착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미결정의 서로다른 타입을 밝히는 일로 관심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VDMD의 점수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의 정도를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이같은 타입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나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가 지각한 변화에 대한 필요의 강도를 알게 해준다. Holland와 Holland(1977)는 본 척도에 대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남녀 네 집단에 실시해서 얻은 신뢰도를 각각 .86, .84, .78, .63으로 보고하였다. 이 도구는 후에 My Vocational Situation(MVS; Holland et al., 1980)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특히 MVS의 정체감 척도는 진로결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내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한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

또다른 도구로 Slaney(1980, 1983)는 OAQ(Occupational Alternatives Question)의 유용성을 입증해 보였다. OAQ는 Zener와 Schnuelle(1972)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도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곧 “당신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을 열거하라”와 “이들 중 어느 직업이 당신의 첫번째 선택인가?”이다. 이 도구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Slaney(1980)는 OAQ가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의미있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같은 증거는

표현된 흥미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와 더불어 한정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정성(decidedness)은 연속적인 변인이라는 인식하에 Jones와 Chenery(1980)는 결정성, 결정성 수준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comfort with decidedness level), 미결정에 대한 원인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VDS(Vocational Decision Scale)를 개발하였다. 미결정 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자기 불확실성(self uncertainty), 선택/일 중요성(choice/work salience), 과도기적 자아(transtional self) 등으로 나타났다. Jones와 Chenery(1980)는 다수의 미결정 개인들은 비교적 편안함을 느낀다는 Holland와 Holland(1977)의 견해를 고려하여 명확한 정체감과 높은 진로 중요성(career salience) 등이 진로가 결정된 개인들과 관련되며, 불명확한 정체감과 낮은 진로 중요성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개인들과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들은 정체감의 측면에서 Holland와 Holland(1977)의 결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진로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Greenhaus(1971)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VDS는 후에 CDP(Career Decision Profiles, Johns, 1989)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꾸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로 미결정의 유형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언급될 것이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에 관한 자능感(self-efficacy expectations)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CDMSE(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는 진로 미결정의 측면에서 구조와 확신의 부족이 진로 미결정과 관련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환언하면 의사결정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적다고 보고하는 학생들은 확신이 많다고 보고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미결정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자능감을 진로 미결정에 있어서 중재변인으로 간주하면 개입전략을 구안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된 도구들의 활용빈도와 관련하여 Chartrand와 Camp(1991)는 1971년부터 1990년까지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에 발표된 관련논문들중 CDS를 활용한 연구가 22편,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14편, VDMD를 활용한 연구 5편, 그리고 MVS와 VDS는 각각 6편과 2편의 연구에서 활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CDS와 VDMD가 진로 미결정 측정도구로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두 척도는 내용상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양자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CDS는 진로 미결정에 대한 다원적인 요인들(multiple factors)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VDMD는 미결정의 단일 차원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측정도구들은 그 활용의 목적과 정도가 일정치 않고, 도구의 속성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어떤 측정도구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과 문화를 대상으로 더 다양한 타당화 작업(cross validation)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진로 미결정의 관련 변인들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변인들로서는 능력

(ability), 불안(anxiety), 흥미(interests), 의사결정 양식(decision-making styles) 및 기타 성격변인들이다. 여기에서는 이같은 변인들 각각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능력과 진로 미결정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명한(bright) 학생들은 어떤 영역을 탐색할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질만큼 무척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흥미나 가치와 적절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리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능력변인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들은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 두 종류의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한 Elton과 Rose(1971), 그리고 Rose와 Elton(1971)의 경우 한 연구는 능력과 미결정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한 연구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당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던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과 입학당시 진로를 결정했던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양집단간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lton & Rose, 1971). 입학당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졸업때까지 재학한 학생들과 입학당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고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끝까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중도탈락한 학생들보다 ACT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se & Elton, 1971). 이 연구들은 능력이 미결정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결정"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한 범주(category)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Taylor(1982)는 진로 미결정 학생들이 진로결정 학생들에 비해서 ACT점수가 낮음을 받

견하였다. 능력변인의 역할을 지지하는 또다른 연구는 Lunneborg(1975)에 의해서 수행된 바 있다. 그녀는 상류계층의 학생들 중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비록 Lunneborg(1975)는 자신의 연구가 Rose와 Elton(1971)이 발견한 결과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Lunneborg(1975)의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으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즉 상관관계가 .06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01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이론적인 유의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Sepich, 1987).

진로 미결정과 관련해서 능력변인을 측정한 또다른 연구자들로는 Rogers와 Westbrook(1983), Taylor와 Betz(1983) 등이 있다. 이들 두 연구는 능력변인과 진로 미결정간에 거의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 자능감과 능력수준을 비교한 결과 단지 최소한의 관계(minimal relationship)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Rogers와 Westbrook(1983)는 SAT와 CDS점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가 .06부터 .07사이의 범위로 나타나 진로 미결정과 능력변인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불안과 진로 미결정

불안과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복합적이지만 이들 두 변인은 일단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uqua와 Hartman(1983)은 불안이 만성적인 미결정자를 확인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만성적인

미결정자의 경우, 진로 미결정은 단지 기본적인 심리적 문제들 중 하나의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Hawkins, Bradley 및 White(1977)는 일반적인 불안 뿐만 아니라 결정에 관한 학생들의 불안은 결정의 수준과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상태-특성불안검사(STAI, Spielberger et al., 1983)를 활용한 연구에서 Kimes와 Troth(1974)는 결정한 사람들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간에 불안경향성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불안의 수준이 높음은 결단성의 수준이 낮음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rdon(1981)은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을 발달적으로 고찰한 결과 불안이 만성적인 미결정자들을 확인해 내는 일차적인 선별자(differentiator)임을 확인하였다.

불안과 진로결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처행위의 역할 고찰을 통하여 O'Hare와 Tamburri(1986)는 불안과 미결정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에 거의 진전이 없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특성 및 상태불안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불안과 자능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Fuqua, Newman 및 Seaworth(1988)의 연구와 Newman, Fuqua 및 Seaworth(1989)의 연구에서도 불안과 진로 미결정이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두 연구에서는 불안과 미결정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ifest Anxiety Scale과 Self Directed Search를 활용한 연구에서 McGowan(1977)은 불안과 미결정간에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미결정의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Jones와 Chenery

(1980)는 STAI로 측정된 특성불안과 미결정과의 관계를 고찰한 바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McGowan(197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면서 과거의 연구들과 상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의 연구로서 Newman, Fuqua 및 Minger(1990)는 249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집단과 미결정 집단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수준의 상태 및 특성불안이 있음을 밝혔다. 요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양자간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증거들이 불안이 미결정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흥미와 진로 미결정

흥미의 발달(development), 분화(differentiation) 및 일관성(consistency)은 미결정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 예상과는 달리 Bohn(1968)은 미결정이 단지 미발달된 흥미의 함수가 아님을 발견하였다. 그는 진로 미결정이 보다 잘 발달된 언어적 흥미와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이같은 구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는 학생들의 SAT점수와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 profiles를 활용하였다. Holland, Gottfredson 및 Nafziger(1975)는 Self-Directed Search profiles상의 일관성과 분화가 의사결정 과업 점수를 상당히 높게 예언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진로결정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Holland와 Holland(1977)는 미결정과 일관성 혹은 미결정과 분화간에 아무런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정한 학생들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측정에서 서로 다르기 보다는 보다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체감과 진로성숙도가 결정자와 미결정자를 구별해 주는 일차적인 구별척도로 나타났다. Lowe(1981)가 수행한 연구도 이 분야

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분화와 결정성간에 아무런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진로 미결정과 흥미의 발달, 분화 및 일관성 변인간에는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의사결정 양식과 진로 미결정

진로 미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일부의 연구자들은 의사결정 양식(decision-making styles)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진로결정 양식에 관한 것은 대부분 별도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진로 미결정과 관련시킨 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다. 의사결정 양식에 관한 분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Harren(1979)이 분류한 합리적(rational), 직관적(intuitive), 의존적(dependent) 양식을 말한다. 다른 하나로 Johnson(1978)은 의사결정 양식과 관련해서 정보는 체계적(systematic) 혹은 임의적인(spontaneous)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정보의 처리는 내적(internal) 혹은 외적인(external)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Johnson의 모형에서는 두 차원을 조합하여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학생들의 진로 미결정 과정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Osipow와 Reed(1985)는 학부생 203명에게 CDS와 의사결정 검사(Johnson Decision Making Inventory)를 실시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 미결정의 정도는 임의적/외적, 임의적/내적, 체계적/외적, 체계적/내적인 양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Lunneborg(1978)는 의사결정의 양식이나 진로에 관한 결정성의 수준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으나 Harren

의 합리적인 양식이 진로 결단성과 가장 높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Phillips, Paziienza 및 Walsh(1984)는 서로다른 의사 결정 양식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바 있으나, 합리적인 양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지지해 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이상의 논의로 보아 진로 미결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 양식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연구의 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 5. 성격변인과 진로 미결정

성격변인과 진로 미결정과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Walsh와 Lewis(1972)는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을 소외되고, 긴장감이 있고, 충동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진로 미결정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 비해서 외적 통제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1982). Barrett과 Tinsley(1977)는 높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정교화된 자아개념 및 자신이 유능한 의사결정자라는 자기지각과 관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능감 이론을 진로 미결정에 적용하여 Taylor와 Betz(1983)는 진로 미결정 수준의 증가가 자능감 수준의 감소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Lent, Brown 및 Larkin(1986)도 자능감이 기술/과학분야의 학점, 지각된 진로선택 영역의 범위 등의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능감과 진로 미결정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에 대해서 중요성

을 별로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Greenhaus & Simon, 1977). Phillips와 Bruch(1988)는 성별에 관계없이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shy students)은 진로 미결정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Schumrum과 Hartman(1988)은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진로 미결정에 매우 민감한 성격특성을 소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제안하였다. 좀 특이한 연구로 Pask-McCartney와 Salomone(1988)은 흥미가 다양하고 능력이 많은 것이 진로 미결정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성격변인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실시한 연구에서 Kinner, Brigman 및 Noble(1990)은 가족에게 깊이 몰입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미결정의 정도가 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진로 미결정과 성격변인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동일한 연구주제에 관한 후속적인 반복연구가 많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는 미결정자들의 성격특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진로 미결정의 차원과 유형

진로 미결정을 나타내는 개인들은 모두가 동일한 기본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미결정 개인들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개인을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로 보아 단순하게 개념화하게 되면 어떤 개입(intervention)의 특수한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근에는 미결정 개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화 하는 문제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컨대 Osipow, Carney 및



Barak(1976)은 진로 미결정의 차원에 관심을 두고 있고, Holland와 Holland(1977)는 미결정 학생들의 유형(types)에 관심을 두고 있다.

## 1. 진로 미결정의 차원

미결정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중의 하나는 미결정의 차원을 탐색하여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미결정의 차원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미결정의 문제내에서 네 가지 차원을 밝혀낸 Osipow, Carney 및 Barak(1976)의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CDS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발견된 요인들을 미결정의 차원으로서 해석한다. 여러가지 연구들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탐색하였지만, 연구결과들은 다소간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일치되는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Osipow(1987)는 요인추출된 척도(factor derived scales)의 활용상의 주의를 촉구하였고, Slaney(1988)는 후속연구들이 본래의 요인구조를 얻는 데 실패한 원인은 요인 점수의 유용성에 관한 의문에서 비롯되며, 아울러 이같은 요인점수에 바탕을 둔 척도의 개발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지었다. 불일치되는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연구자들이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보다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원인의 일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Savickas(1989)가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확증적 요인분석이 미결정의 차원을 검토하는데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CDS에 의해서 측정된 차원들이 표집간에 안

정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논의한 연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Shimizu 등(1988)은 선행연구들이 안정성 있는 요인구조를 확인하는데 실패한 원인은 부분적으로 요인분석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들은 각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가능한 메트릭(comparable metric)으로 전환하여 방법론적으로 일곱개의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요인 안정성이 더 크게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CDS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혼돈, 실망, 경험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미결정, (2) 강화와 지원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결정, (3) 여러가지 진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접근-접근 갈등, (4) 진로결정에 관한 내적 및 외적인 장애들 등의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같은 요인들이 이전의 연구들을 방법론적으로 통합하여 밝혀낸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Schulenberg 등(1988)은 진로 미결정의 차원들이 청년기 동안에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첫번째 연구에서 밝혀낸 네 가지의 요인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7-9학년과 10-12학년의 학생들을 각각 남녀로 구분한 네 개의 하위집단을 검토한 결과 청년기 동안에 구조적인 재조직의 증거를 발견하지도 못하였고 새로운 차원이 등장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같은 결론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델을 고안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동일한 표집을 활용했으며, 횡단적인 자료에 대해서 발달적인 가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독립적인 표집에 대해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Shimizu 등은 모든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차원들의 발달적인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진로 미결정 차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할 수 있다.

Fuqua, Newman 및 Seaworth(1988)는 CDS에 대한 대학생 349명의 반응으로부터 추출한 미결정의 네 가지 차원에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관련시켰다. 네 가지 차원이란 (1) 정보의 필요와 결정을 미루려는 경향, (2) 자신과 다양한 직업들간의 적합성에 관한 정보의 필요, (3) 흥미의 다양성, (4) 실천에 대한 장애 등을 말한다. 이들 네 요인들에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관련시킨 결과 불안은 흥미의 다양성 차원과 관련이 없고 나머지 세 차원들과는 관련이 있으며, 특히 첫번째 차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끝으로 몇몇 연구자들은 진로 미결정의 선행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언급하였다: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명료한 정체감의 부족, 선호하는 선택에 대한 지각된 외적 장애물, 결정을 해야 할 필요에 대한 즉시성의 부족(Holland & Holland, 1977; Osipow, Carney, & Barak, 1976; Slaney, Palko-Nonemaker, & Alexander, 1981)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여러 연구자들은 요인분석 기법을 활용,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 미결정의 기저에 깔려있는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비록 이같은 연구들이 진로 미결정의 복합적인 본질(complex nature)에 대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긴 했지만, 각 집단들에 걸쳐서 안정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2. 진로 미결정의 유형

미결정 개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또다른 접근은 이들을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미결정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를 위해 이같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진로 미결정에 대한 유형화의 첫 단계는 앞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미결정(undecidedness)과 결단성부족(indecisiveness)을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발달단계상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결단성이 부족한 집단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특질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alomone(1982)은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1) 높은 수준의 불안정(ambivalence), 불안, 좌절, (2) 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 (3) 낮은 자기확신(self-confidence)과 자아존중감(self-esteem), (4) 외적 통제성, (5)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 등을 들었다. 진로 미결정과 진로결단성 부족을 구별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유용하게 보이나 Slaney(1988)는 그 이후 이 두 가지 구인에 대한 타당성과 차별성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진로를 구체화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미결정 학생들의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담자들은 Holland와 Holland(1977)의 견해를 따르는데, 이들은 문헌분석과 자신들의 연구에 기초를 둔 탐색을 통해서 미결정 학생들은 세 종류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위집단을 (1)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압력을 표현하지 않는 집단, (2) 가벼운 수준 부터 중간수준까지의 미

성숙성, (3) 중간 수준 부터 심각한 수준까지의 미성숙성 등으로 특징화 하였다.

Fuqua, Blum 및 Hartman(1988)은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태-특성불안 검사(STAI),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 Holland, Gottfredson, & Nafziger, 1975), 내외통제척도(Rotter, 1966), 진로결정척도(CDS) 등을 실시하여 이들을 네 가지 타입중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진로를 결정한 집단(CDS=22.9)은 표집의 41.9%에 해당하였으며, 과도한 불안이 거의 없었고 내적인 통제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비교적 효과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중간정도의 미결정/중간정도의 불안집단은 표집의 22.6%에 해당하였으며, 중간 정도의 미결정(CDS=28.7) 수준을 보이고 상당한 정도로 내적인 통제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불안이 있고 정체감 형성이 부진한 편이었다. 나머지 두 집단은 모두 심각한 진로 미결정 상태에 있었으며(CDS = 37.0 및 36.4), 외적인 통제성향을 소유하고 있고 정체감 형성이 빈약한 수준이었다. 심각한 미결정/중간정도의 불안집단은 표집의 27.7%에 해당하였으며 중간정도의 불안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심각한 미결정/과도한 불안집단은 표집의 7.7%에 해당하고 과도한 불안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만약에 향후의 연구결과 불안이 집단들을 구분해 준다는 확증이 발견된다면 불안수준은 차별적인 개입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Larson 등(1988)은 대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미결정(CDS), 흥미, 문제해결 자기평가(problem-solving self-appraisal) 등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Career Planning Inventory(CPI)를 제작·실시하여 진로문제 해결, 진로신화(career

myths), 지원체제, 자신에 관한 지식, 지각된 압력, 학문적 자능감, 일의 세계, 진로장애 등 8개 척도에 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자들은 조작적 정의를 위하여 공식적인 기한내에 전공을 결정하고 CDS의 첫 두문항의 점수가 6점 이상인 학생을 결정한 학생들로 보았다. 또한 공식적인 기한내에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미결정 학생들로 간주하였다. 26명의 결정한 학생들의 CDS평균점수는 21.9였고, 87명의 미결정 학생들의 CDS평균점수는 36.3이었다. 군집분석 결과 미결정 학생들에 대해 네 개의 하위집단이 구성되었다. 계획이 없는 회피자 집단(planless avoiders)은 표본의 21%였으며 CDS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39.3), 문제해결력이 매우 낮으며 CPI의 8개 척도중 5개 척도의 점수가 최하였다. 정보를 소유한 결단성 부족집단(informed indecisives)은 단지 표본의 5%였으며 CDS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고(24.0), 문제해결력이 낮으며 CPI의 8개 척도중 7개 척도의 점수가 최상이었다. 확신은 있으나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confident but uninformed)은 표본의 25%였고 CDS(32.5)와 CPI의 점수는 보통이었으며, 문제해결력은 최상이었다.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uninformed)은 표본의 49%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신은 있으나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과 유사하지만(CDS평균점수=37.9) 문제해결력은 보통수준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군집분석 연구는 그 대상, 변인, 군집화 전략 등이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 Fuqua 등의 연구에서의 결정한 집단과 Larson 등의 연구에서의 결정한 집단은 CDS의 평균(22.9 대 21.9)이 유사하다. 비록 Larson 등은 정보를 소유한 결단성 부족 집단을 미결정 집단으로 분류했지만,

이 집단은 결정한 학생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arson 등의 연구에서 확신은 있으나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은 중간정도의 미결정 집단과 유사하고, 탁월한 문제해결 집단은 Fuqua 등의 연구에서 중간정도의 미결정/중간정도의 불안 집단과 유사하다. 아울러 이들 두 집단은 Holland와 Holland가 말한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압력이 없는 집단과 또한 유사하다. Larson 등의 연구에서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은 심각한 미결정 집단과 유사하고, 중간수준의 문제해결력을 지닌 집단은 미결정의 수준에 있어 Fuqua 등의 연구에서 심각한 미결정/중간정도의 불안 집단과 유사하다. 아울러 이들 두 집단은 Holland와 Holland가 말한 약간부터 중간정도의 미성숙성을 지닌 집단과 또한 유사하다. Larson 등의 연구에서 계획이 없는 회피자 집단은 심각한 미결정 집단과 유사하고 문제해결력이 매우 낮은 집단은 미결정의 수준과 개념적 기술에 있어 Fuqua 등의 연구에서 심각한 미결정/과도한 불안 집단과 유사하다. 이들 두 집단은 Holland와 Holland가 말한 중간부터 심각한 수준의 미성숙성을 지닌 집단과 또한 유사하다.

더욱 많은 후속연구가 요청되긴 하지만, Savickas(1989)는 미결정 학생들의 유형에 관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미결정은 세 가지 수준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수준1은 약간부터 중간정도의 미결정 수준과 유사하고 불안이 거의 없으며 문제해결력이 훌륭하다. 수준2는 중간부터 심각한 수준의 미결정 수준과 유사하고 중간정도의 불안을 소유하고 있다. 수준3은 과도한 불안을 지닌 심각한 미결정 집단과 유사하다. 수준2와 수준3의 중요한 차이는 불안의 양인데, 이는 CDS에 의해서 측정되지 않는 변인이다. 수준2는 발달적인 미결정(미결

정으로 부터 생겨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 수준3은 만성적인 미결정(불안이 결단성이 부족한 성향의 원인으로 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많이 포함한다.

미결정 학생들을 군집화한 또다른 연구는 미결정의 두 가지 양적인 수준(수준1과 수준2)속에 구별되는 질적인 패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Lucas와 Epperson(1988)은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514명중 302명을 검사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미결정 학생으로 분류하였다. 자기존중감, 불안, 내외통제성, 진로정체감, 역할중요성(일, 여가, 관계) 등의 측정치를 활용, 미결정 학생들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행복을 느끼며 일에 오리엔트된(happy and work-oriented) 학생들은 활발하게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행복을 느끼며 유희적인(happy and playful) 학생들은 비록 당장은 여가활동에 더 큰 흥미를 느끼지만 진로에 대한 결정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에 빠진(caught in a dilemma) 학생들은 낮은 진로중요성을 보이며 어떻게 생활장면의 다양한 역할들에 균형을 유지할까를 탐색해 가는 것으로 보이며, 결정하지 못하였고 흥미가 제한된(undecided and limited interests) 학생들은 진로결정 과정에 몰두하려는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을 느끼고 목표가 불명확한(anxious and unclear on goals)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높은 수준의 불안, 낮은 자기존중감, 외적인 통제성향 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후에 Lucas와 Epperson(1990)은 19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역시 5개의 미결정집단을 제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점수를

미결정의 지표로 고려할 경우, Lucas와 Epperson이 기술한 각 집단을 전술한 미결정 수준들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의 "행복한" 집단은 수준1 학생들의 두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와 "제한된 흥미" 집단은 수준2 학생들의 두 유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불안한" 집단에 대한 기술내용은 수준3과 일치한다. 미결정 학생들을 세 수준으로 개념화 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과 각 수준별로 질적인 하위유형이 존재한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진로 미결정에 대한 또다른 유형화는 Jones와 Chenery(1980)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진로결정 지위모델(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이라 불리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차원에 따라서 묘사될 수 있다고 본다. 세 가지 차원이란 (1) 결정성(decidedness)(미결정의 정도), (2) 편안수준(comfort level)(자신의 미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편안한가?), (3) 이유(reasons)(미결정에 대한 이유) 등을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앞서 논의된 '진로결정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 VDS, Jones & Chenery, 1980)'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후에 VDS는 '진로결정프로파일(Career Decision Profile: CDP, Jones, 1989)'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CDP를 사용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개인들을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1) 결정한-편안한(decided-comfortable), (2) 결정한-불편한(decided-uncomfortable), (3) 결정하지 않은-편안한(undecided-comfortable), (4) 결정하지 않은-불편한(undecided-uncomfortable) 등을

의미한다. 이같은 형태의 분류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했으나 그 결정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CDP는 개인들이 미결정 상태에 있는 것을 네 가지 이유에 따라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네 가지 이유란 (1) 자기명료화의 부족(lack of self-clarity)(자신의 장점, 약점, 흥미, 성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미결정), (2) 직업에 관한 지식의 부족(직업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미결정), (3) 결단성 부족(indecisiveness)(일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미결정), (4) 진로선택 중요성(career choice importance)(어느 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목적에 있어서 중요한가 혹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 등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로결정 지위모델은 하위타입들을 구체화시켜 주는 수단으로서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델을 평가하는 명확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진로 미결정은 다양한 타입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complex),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구인이라는 것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Hartman, Fuqua, & Jenkins, 1986). 이같은 견해는 결정하지 않은 개인들이 동질적(homogeneous)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미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초기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Wanberg & Muchinsky, 1992). 예컨대 Crites(1969)는 일찌기 미결정 문제를 세 가지 형태로 기술한 바 있다: (1) 잠재력이 다양한 미결정(multipotentialed)(진로에 대한 다양한 선택 사항 중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태), (2) 미결정

(undecided)(활용가능한 여러가지 기회들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태), (3) 무관심(uninterested)(진로에 관한 흥미의 패턴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

끝으로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두 편을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Savickas와 Jarjoura(1991)는 16개의 개별적인 CDS 문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진로 미결정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들이 개별적인 척도 문항들(individual scale items)을 사용한 이유는 CDS의 본래적인 의도가 진로 미결정 형태를 밝히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DS를 형태지표로서 고찰한 선행연구가 드물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5개의 진로 미결정 형태가 발견되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1) 결정된 집단(decided), (2) 지속적인 탐색을 통해 선택을 구체화하는 집단(specifying choice through advanced exploration), (3) 광범위한 탐색을 통해 선택을 정교화하는 집단(crystallizing preference through broad exploration), (4) 비현실적인 집단(unrealistic), (5) 결단성이 부족한 집단(indecisive). 다음으로 Wanberg와 Muchinsky(1992)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4개의 군집을 발견하였다: (1) 결정한-편안한(decided-comfortable), (2) 결정한-염려되는(decided-concerned), (3) 결정하지 못한-무관심한(undecided-indifferent), (4) 결정하지 못한-불안한(undecided-anxious).

진로 미결정의 유형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군집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Savickas와 Jarjoura(1991)는 CDS 문항의 복합성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특성적 접근(요인분석)보다는 유형학적 접근(군집분석)이 더 유용하다

고 주장한다. Winer(1992)도 미결정연구에 대해서 군집분석을 활용할 것을 지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치가 CDS 개발자들의 본래의 생각(예컨대 몇 개의 미결정 형태가 존재한다는)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이 미결정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지지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변인들을 활용하여 진로 미결정이라는 구인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함을 또한 시사해 주고 있다.

## 진로 미결정과 진로상담의 실제

진로 미결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자들이 주로 활용해 온 기법은 무엇이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Holland와 Holland(1977)는 미결정 개인들의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나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대상자들의 1/4이 다소간(slight to moderate) 미성숙,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 불안, 소외 등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1/4은 이같은 속성이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미결정 상태에 있는 개인들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개입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명확하다. 이질적인 개인들에게 단 하나의 동일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은 기껏해야 혼합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불안이 매우 심하고 미성숙한 개인을 직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워킹을 통해 지도한다면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반대로 Holland와 Holland(1977)가 지적했듯이 어떤 미결정 개인들은 도움을 원

치 않으며, 대부분의 미결정 개인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가장 일반적인 개입전략들은 측정도구들(assessment devices)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들은 실시하기가 쉽고, 객관적이며 경제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게 된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보다 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개입기법들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개입전략으로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결과가 보고된 바도 있다. 예컨대 McGowan(1977)은 Self-Directed Search를 실시한 후 미결정 상태에 있던 사람들 중의 약 50%가 진로선택을 표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결정한 사람들과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정보를 주는 것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Cesari 등(1982)은 정보제공의 결과로서 인지복합성(cognitive complexity)에 있어서 양 집단간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Barak, Carney 및 Archibald(1975)도 직업정보 탐색과 직업 결정간에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로 결정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정보를 가지고 있음이 개인들로 하여금 보다 정보에 충실한 결정을 하도록 한다할지라도 정보 자체가 의사결정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Neice와 Bradley(1979)는 진로 오리엔테이션 코스(career orientation courses)에 등록한 학생들이 동 코스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그들의 이같은 가설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Barak과 Friedkes(1982)는

집단상담과 검사해석 상담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구조가 부족(lacked structure)한 학생들은 이같은 처치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았으나, 외적인 장애물을 지각한 학생들과 개인적인 갈등을 경험한 학생들은 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담자는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경우 개입을 적절히 구조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Pinder와 Fitzgerald(1984)는 컴퓨터 지도 프로그램인 CHOICE가 진로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는데 성공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Sampson과 Stripling(1979)도 컴퓨터에 의한 지도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며, 이것이 상담자의 구조화된 개입과 결합되면 더욱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진로 미결정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다룰 경우, Lopez(1983)는 역설적인 기법(paradoxical approach)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임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단성이 부족한 학생과 과도하게 깊이 관여하는 아버지를 다루고 있다. 비록 본 사례연구가 엄격히 통제된 실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의 결과는 보다 세련되고 다양한 타당화를 요하는 또다른 잠재적인 개입전략을 시사하고 있다.

O'Hare와 Tamburri(1986)는 상태 및 특성불안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능적인 행위에 몰두할 수 없는 학생들은 불안변경기법(anxiety altering techniques)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불안을 다루는 능력 없이는 그러한 학생들은 여타의 진로상담 기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결정 학생들에 대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연구자들 각각은 차별적인 처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앞의 미

결정의 유형에서 언급된 Savickas(1989)는 이같은 암시를 자기가 분류한 각 집단별로 구체화 시켰다. 먼저 수준1에 속하는 학생들은 단기적인 목표 혹은 자기 지시적인(self-directed) 개별학습 경험(DISCOVER, SIGI, Self-Directed Search등)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수준2에 속하는 학생들은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와 자신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한 진로계획 코오스 혹은 진로상담(흥미검사목록의 활용 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준3에 속하는 학생들은 의사결정에 관한 심리적 장애, 불안감소,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등을 다루는 개인상담 혹은 심리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요약 및 결론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한 후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향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는 진로 미결정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먼저 진로 미결정의 개념을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의 개념과 동시에 살펴 보았다. 이어서 진로 미결정의 측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연구 도구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것들은 CDS, VDMD, MVS, OAQ, VDS, CDMSE 등이며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속성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많은 CDS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진로 미결정과 중요하게 관련되는 변인들로서 능력, 불안, 흥미, 의사결정 양식 및 성격변인을 상정하

고 이를 다룬 연구결과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변인들에 있어서 진로 미결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과 무관하다고 밝힌 연구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진로 미결정의 차원과 유형을 다룬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진로 미결정자들이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 차원과 유형을 밝히기 위해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을 제시하고 그 결과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끝으로 진로 미결정을 다루는 상담실체에 있어서의 개입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특히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에 초점을 두어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알아보았다.

이제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진로 미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진로결정과 진로 미결정에 대해서 그 개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연구가 요망된다. 많은 연구들이 분명한 개념 정의 없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몇몇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들로부터 추출된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간의 비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Hartman, Fuqua 및 Jenkins(1986)는 진로 미결정이라는 구인의 신뢰도(reliability)와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를 검토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미결정이 보다 심각해 질수록 그 구인의 불안정성(instability)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진로 미결정의 복잡성(complexity)과 명확한 정의를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같은 작업에는 미결정과 결단성 부족, 미결정과 무결정을 의미있게 구분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 미결정의 측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 미결정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측정도구의 속성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Zytowski와 Betz(1972)는 연구에 사용한 도구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언급하지 않는 상담 연구 보고서는 절대로 출판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CDS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로 타당성을 인정 받았고, 아울러 지대한 관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많은 연구들이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도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도구가 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드물어서 해당 측정도구에 대한 효능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같은 연구에서 도출된 개입기법이나 관련변인들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문화에 적합한 진로 미결정 측정도구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은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들을 번안하여 우리상황에서 타당화 작업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 미결정과 관련되는 변인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좀 더 엄격한 실험설계하에서 표준적인 도구들을 사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진로성숙에 관련된 변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모두가 상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결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

인가를 탐색하는 연구도 중요한 탐구의 영역이 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 미결정의 차원과 유형을 밝히는 연구도 계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미결정 개인들 각각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개입을 구안하기 위해서 이같은 노력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선행작업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러 집단의 미결정자들의 유형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많은 연구의 수행이 요망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Lucas 등의 연구와 Larson 등의 연구는 모두 군집분석에서 오직 진로 미결정 학생들만을 포함시켰다. 미결정 학생들의 유형을 찾아낸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견해는 일견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결정된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진로상담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결정한-불편한 집단(진로결정 지위모델에서 제시된)의 존재 가능성을 알아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진로 결정자와 진로 미결정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상담실제에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진로 미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가 절실하다. 개입전략을 다룬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검사(tests), 워크숍, 상담, 진로의사결정 훈련, 직업정보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구나 미결정의 유형에 따라 그에 적합한 개입방법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를 밝히려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러가지 검사목록과 컴퓨터에 의한 개

입이 측정 도구상으로 볼 때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같은 개입들이 실험실 장면 이외에서 개인의 행동(예컨대, 구직행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끝으로, 진로 미결정을 다루는 진로상담의 과정연구(process research)도 매우 중요한 탐구영역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된 모든 연구들은 사실상 성과연구들(outcome researches)이다. 물론 몇몇 사례연구들이나 이론적인 논문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예컨대 Gordon, 1981; Lopez, 1983).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내담자들의 진로 미결정을 변화시키는 개입을 하는 동안에 무엇이 발생하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결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몇몇 개입들이 몇몇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상담개입을 하는 동안에 개인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해명하기 위해서 단일피험자 연구와 같은 종단적 사례연구들이 절실히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Barak, A., & Friedkes, R.(1982).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ndecision subtypes on career-counseling effect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120-128.

Barak, A., Carney, C.G., & Archibald, R.D.(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information

seeking and educational and vocational decided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 149-434.

Barrett, T.C., & Tinsley, H.E.A.(1977).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01-307.

Bohn, M.J.(1968). Vocational indecision and interest development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9*, 393-396.

Chartrand, J.M., & Camp, C.C.(1991). Advances in the measurement of career development constructs: A 20-year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1-19.

Cesari, J.P., Winer, J.L., Zychlinski, F., & Laird, I.O.(1982). Influence of occupational information giving on cognitive complexity in decided versus undecided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224-230.

Crites, J.O.(1969).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Elton, C.F., & Rose, H.A.(197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vocationally undecided mal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85-92.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Fuqua, D.R., & Hartman, B.W.(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Fuqua, D.R., Newman, J.L., & Seaworth, T.B.(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154-158.
- Gordon, V.N.(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Greenhaus, J.H.(1971). An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career salience in voc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209-216.
- Greenhaus, J.H., & Simon, W.E.(1977). Career salience, work values,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104-110.
- Harren, V.A.(1979). A model of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tman, B. W., & Fuqua, D. R. (1982).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adapted for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 69-77.
- Hartman, B. W., Fuqua, D. R., & Jenkins, S. J. (1986). The reliability /generalizability of the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142-148.
- Hartman, B.W., Fuqua, D.R., Blum, C.R., & Hartman, P.T.(1985). A study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identifying longitudinal patter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202-209.
- Hartman, B. W. Fuqua, D. R., & Hartman, P. T. (1983). The predictive potential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identifying chronic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103-108.
- Hawkins, J.G., Bradley, R.W., & White, G.W.(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98-403.
- Holland, J.L., & Holland, J.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Holland, J.L., Gottfredson, G.D., & Nafziger, D.H.(1975). Testing the validity of some the oretical signs of vocational decision-making 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411-422.
- Holland, J.L., Gottfredson, G.D., & Power, P.G.(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 Johnson, R.H.(1978). Individual styles of decision making: A theoretical model for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 530-536.
- Jones, L.K.(1989). *The Career Decision Profile*. Unpublished scale.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Jones, L.K., & Chenery, M.F.(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 Kelly, G.A.(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ts*. New York: Norton.
- Kimes, H.G., & Troth, W.A.(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280.
- Kinner, R.T., Brigman, S.L., & Noble, F.C.(1990). Career indecision and family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309-312.
- Larson, L.M., Heppner, P.P., Ham, T., & Dugan, K.(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nt, R.W., Brown, S.D., & Larkin, K.C.(1986). Self-efficacy in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ived career o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65-269.
- Lopez, F.G.(1983). A paradoxical approach to vocational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410-412.
- Lowe, B.(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interest differentiation and career undecided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346-349.
- Lucas, M.S., & Epperson, D.L.(1988). Personality types in vocationally undecided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 460-466.
- Lucas, M.S., & Epperson, D.L.(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82-388.
- Lunneborg, P.W.(1975). Interest differentiation in high school and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 297-303.
- Lunneborg, P.W.(1978). Sex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299-305.
- McGowan, A.S.(1977). Vocational maturity and anxiety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and indecisive student: The effectiveness of Holland's Self-Directed 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 196-204.
- Neice, D.E., & Bradley, R.W.(1979). Relationship of age, sex, and educational groups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71-278.
- Newman, J.L., Fuqua, D.R., & Seaworth, T.B.(1989). The role of anxiety in career indecision: Implication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7, 221-231.
- Newman, J.L., Fuqua, D.R., & Minger, C.(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78-188.
- O' Hare, M.M., & Tamburri, E.(1986). Cop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55-264.
- Osipow, S.H.(1987). *Career Decision Scale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Osipow, S.H., & Reed, R.(1985).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68-373.
- Pask-McCartney, C., & Salomone, P.R.(1988).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I-The multipotential cli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31-240.
- Phillips, S.D.(1992). Career Counseling: Choice and Implementation. In S.D. Brown & R.W.Lent,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 513-547).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hillips, S.D., & Bruch, M.A.(1988). Shyness and dysfunction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9-165.
- Phillips, S.D., Paziienza, N.J., & Walsh, D.J.(1984). Decision making styles and progress in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96-105.
- Pinder, F.A., & Fitzgerald, P.W.(1984). The effectiveness of a computerized guidance system in promoting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4, 123-131.
- Rogers, W.B., & Westbrook, B.W. (1983). Measuring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 Toward a valid approach for counseling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 Guidance*, 16, 78-85.
- Rose, H.A., & Elton, C.F.(1971). Attrition and the vocationally undecided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99-103.
-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Salomone, P.R.(1982). Career counseling: Steps and stages beyond Pars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18-221.
- Sampson, J.P., & Stripling, R.O.(1979). Strategies for counselor intervention with a computer-assisted career guidance system.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 230-238.
- Savickas, M.L.(1989). Annu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88.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8, 100-134.
- Savickas, M. L., & Jarjoura, D. (1991). The career decision scale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85-90.
- Schulenberg, J. E., Shimizu, K., Vondracek, F. W., & Hostetler, M. (1988). Factorial invariance of career indecision dimensions across junior high and high school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3, 63-81.
- Schumrum, T., & Hartman, B.W.(1988).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chronic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7, 118-126.
- Sepich, R.T.(1987). A review of the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8-23.
- Shimizu, K., Vondracek, F. W., Schulenberg, J. E., & Hostetler, M. (198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Similarities across selected stud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13-225.
- Slaney, R.B.(1980). Expressed vocational choice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122-129.
- Slaney, R.B.(1983). Influence of career indecision on treatments exploring the vocational interest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55-63.
- Slaney, R.B.(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B. Walsh & S.H.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pp. 33-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laney, R.B., Palko-Nonemaker, D., & Alexander, R.(1981). An investigation of two measur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92-103.
-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hene, R.E., Vagg, P.R., &

- Jacobs, G.A.(1983). *State-Trait Anxiety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aylor, K.M.(1982). 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Correlates and moder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318-329.
- Taylor, K.M., & Betz, N.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yler, L.E.(1961). Research explorations in realm of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195-201.
-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 Shime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Walsh, W.B., & Lewis, R.O.(1972). Consistent, inconsistent and undecided caree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309-316.
- Wanberg, C.R., & Muchinsky, P.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 71-80.
- Williamson, E.(1937). Scholastic motivation and the choice of a vocation. *School & Society, 46*, 353-357.
- Winer, J.L.(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369-375.
- Zener, T.B., & Schnuelle, L.(1972). *An evaluation of the Self-Directed Search*.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 Zytowski, D.G., & Betz, E.L.(1972). Measurement in counseling research: A review. *Counseling Psychologist, 1*, 72-86.

## Research Topics in Career Indecision

**Bong-Whan Kim**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 Education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has been used to refer the problems related to career decision-making.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review the studies in career indecision and to find future research topics. In this review, the concept of career indecision and its difference with indecisiveness were discussed. And several assessment tools(CDS, VDMD, MVS, OAQ, VDS, and CDMSE) which have been developed to measure career indecision were reviewed. A great deal of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identifying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indecision. Such factors as ability, anxiety, interest, decision-making styles, and other personality variables were considered. Two research topics in career indecision were discussed: the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and the types of undecided individuals. Additionally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as means to "treat" individual's career indecision. An emphasis was placed on 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 Finally, future research topics were suggested.